

지역경제의 현황과 실태

조 계 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 론

'97년 IMF를 겪은 우리경제는 최근 몇 년간 외형적으로는 여러분야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진행으로 '98년말 부터 경기는 회복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2002년에는 IMF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001년 상반기 이후 우리경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도덕적 해이와 방해세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과 무역의 양대 적자확대, 일본의 경기회복 미진,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른 국가간 갈등 등으로 인한 해외경제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경기회복 상태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에 들어와서 상반기까지는 국민들의 소비증대와 일부 반도체 및 IT산

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산업가동률은 떨어지고 투자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영동지방과 영남지방은 태풍루사와 폭우로 말미암아 산업과 경제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해외경제도 미국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경기악화를 예고하는 주가 급락 등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경제도 경기와 경북 등 전자와 IT산업이 집중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이 중심인 강원도 경제는 경기악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